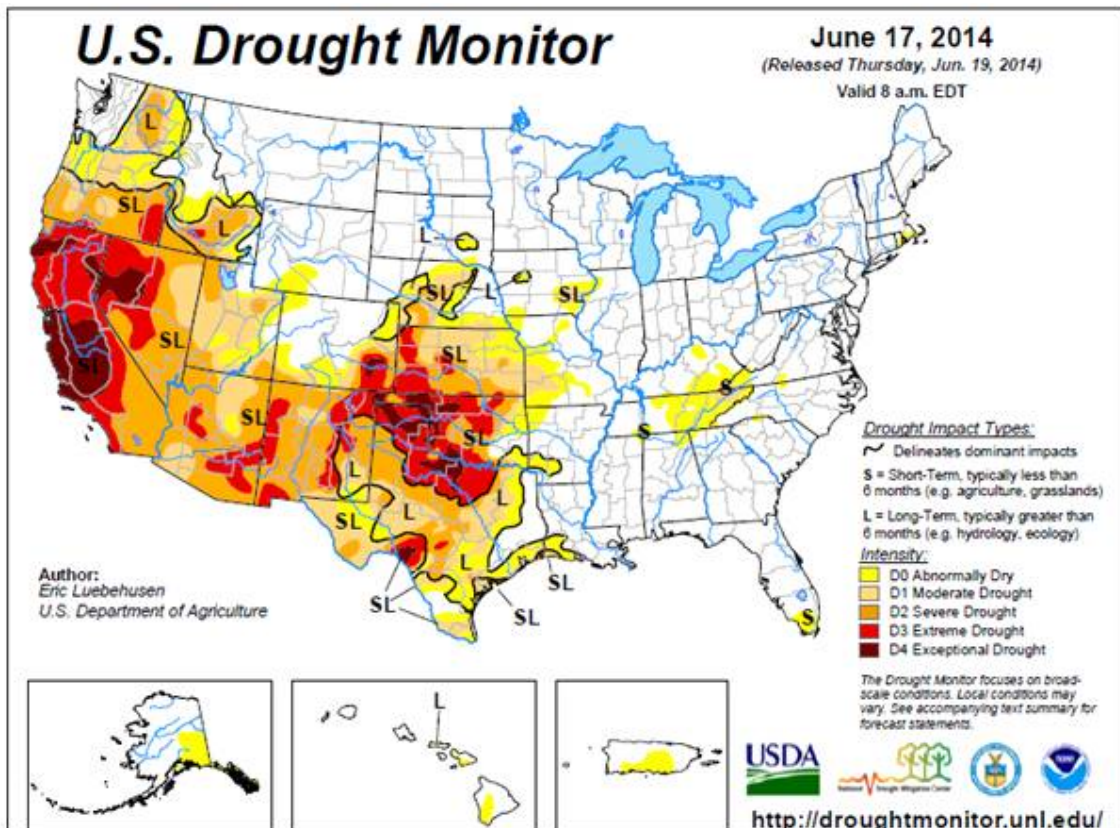


6월 24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1, No. 25)

□ 미국 기후 현황(06/15~06/21)



비는 중서부 상단지역으로 확대되어 내렸으며, 이로 인해 가뭄은 완화되었지만, 야외 농작업 활동은 지연되었으며, 저지대에서는 홍수가 발생하였다. 남부 미네소타 지역과 북부 아이오와 및 인근지역의 주간 총 강수량은 4~8인치 정도가 일반적이었다. 해당 지역에서는 강 유역으로 내린 비를 방류하여 일부 지역의 경우 댐의 수위가 고수위를 유지하였다. 한편, 남부 콘 벨트 지역과 대부분 지역에서는 건조한 날씨가 여름 곡물의 발달을 가속화시켰다. 남부 평야 지역의 경우 다년간 이어진 가뭄현상이 회복되었고, 국지적이고 산발적인 소나기에도 불구하고 북부와 동부 대다수 지역에서는 가뭄이 잔존하였다. 몬타나와 남부 텍사스, 플로리다 반도의 경우 많은 양의 비가 내렸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홍수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플로리다의 소나기는 여름 우기 시즌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으며, 남부 일부 주에서 건조한 날씨로 인한 근심들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쪽으로 갈수록, 장기간 가뭄지역이었던 중부 고원평야지대의 경우 소나기가 넓은 지역에 내렸으며, 중부지역에서는 불안정한 대기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계절에 적합한 건조한 날씨는 서부의

핵심적인 가뭄지역에 팽배하게 나타났으며, 고온 현상에 뒤이어 서늘한 날씨가 이어졌다. 서부 지역에서는 맑은 날씨로 인해 야외 농작업과 작물의 발달이 촉진되었지만, 많은 양의 관개 수요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북서부 지역에서는 산발적인 소나기가 내려 가을 밀과 봄철 파종된 곡물의 생육에 도움을 주었지만, 소나기의 양은 미미하였다. 서부지역의 경우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낮은 기온이 나타났고, 중부와 남부 평원과 중부 대서양 지역에 위치한 주(州)들의 경우 평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형성되었다.

□ 농업 현황 요약(06/16~06/22)

록키 산맥을 기준으로 서쪽 지역에서는 평년보다 10°F 정도 낮은 기온을 기록하였으며, 오하이오 계곡에서는 기온이 평년보다 6°F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텍사스 지역을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남부지역의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미네소타와 아이오와 지역에서 한 주 간 총 강수량은 8인치 보다 높았는데, 이로 인해 토양 수분은 포화되었고, 곡물에는 스트레스가 발생하였으며, 이 지역에서 파종을 마무리하려던 노력은 지연되었다. 미네소타 지역에서는 단지 1.1일 정도가 야외 농작업을 하기에 적합한 날씨로 집계되었으며, 생산자들은 건초를 베거나, 작물에 농약을 살포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 옥수수

주말 기준, 미국 전체 옥수수의 상태는 74%가 좋음/아주 좋음으로 보고되었으나, 이는 지난주 보다는 2%p 낮고, 전년 동기대비 9%p 높은 수준으로 집계되었다. 미네소타 지역에서는 비가 오는 날씨로 인해 좋음/아주 좋은 옥수수의 상태가 9%p 하락한 7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미주리와 텍사스 지역에서는 비가 내린 덕분에 좋음/아주 좋음인 옥수수의 상태가 각각 75%, 62%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지난주 대비 각각 4%p, 5%p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대두

6월 22일 기준, 전국 생산자들의 95%가 파종을 마무리 하였으며, 전년대비 4%p, 5년 평균대비 다소 앞선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파종에 유리한 기상조건으로 인해 알칸사스, 켄터키, 북부 캐롤라이나 지역에서 2자리수의 파종률을 나타내었다. 주말 기준, 전국 대두의 발아율은 90%p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전년대비 11%p 앞섰고, 5년 평균대비 3%p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켄터키, 미시건, 위스콘신 주에서 대두의 발아율은 14%p가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전체 대두의 상태는 72%가 좋음/아주 좋음으로 보고되었으며, 이는 지난주 보다는 다소 낮게 나타났지만, 전년 동기대비 7%p 높은 수준으로 집계되었다.

■ 가을밀

6월 22일 기준, 출수기에 진입한 가을밀은 96%로 전년과 5년 평균 대비 2%p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전체 생산자들의 가을 밀 수확량은 33%p로 전년대비 14%p, 5년 평균 대비 2%p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전체 가을밀의 상태는 30%가 좋음/아주 좋음으로 보고되었으며, 이는 지난주와 동일한 수치였지만, 전년대비 2%p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쌀

6월 22일 기준, 전국적으로 쌀 출수율은 3%로 전년대비 동일하였으며, 5년 평균 대비 2%p 뒤쳐진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전체 쌀의 상태는 68%가 좋음/아주 좋음으로 보고되었으며, 이는 전주대비 다소 낮은 수준이며, 전년동기 대비 동일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 세계 기후 현황(06/15~06/21)

- 유럽: 북부와 중부 유럽에서는 맑고, 서늘한 날씨가 나타났으나, 남부 농업지역에서는 국지적으로 많은 양의 비가 내렸다. 북동부 대서양 지역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인해 맑은 날씨가 이어졌고, 가을밀과 유채의 성숙 및 수확을 촉진하였다. 주 후반 내린 소나기(1~10mm)는 독일과 폴란드 지역에 내렸으며, 한랭전선이 이 지역을 휩쓸고 지나갔다. 한편, 느리게 이동하는 지중해 폭풍으로 인해 이탈리아와 발칸반도 지역에는 비가 내렸고, 강수량은 25~100mm를 기록하였다. 옥수수과 해바라기에 필요한 토양 수분을 확충하였지만, 밀 수확은 지연되었다. 소량 혹은 적당한 양의 소나기(2~30mm)는 북부 이탈리아와 동부 스페인 지역의 옥수수와 대두 성장에 이로운 조건을 형성하였다. 대체로 겨울과 여름작물 생육 조건에 좋은 날씨가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부 프랑스와 남부 독일 인접지역에서는 다시금 토양 수분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 지역에서는 현재 자라고 있는 여름 곡물의 수확량 전망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더 많은 양의 비가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구소련(서부): 넓은 지역에 내린 소나기와 평년대비 낮은 기온은 많은 지역의 밀과 여름 곡물에 대한 수확 전망을 향상시켜 주었다. 느리게 이동하는 한랭전선은 동부 우크라이나에서 남부와 서부 러시아 지역에 경량 혹은 적정량의 비(3~25mm)를 내리게 하였으며, 가을밀과 여름 곡물의 생육단계를 충진해 재생산의 시기에 돌입할 수 있도록 토양 수분의 양을 충족시켰다. 또한, 매섭게 서늘한 날씨(평년대비 4°C 낮음)를 완화시켜주었고, 전주에 발생한 고온현상으로 인한 작물의 스트레스를 경감시켜주었다. 낮 최고기온(24~30°C)은 이상적인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불가 동부지역의 경우 단기간 수분 부족에 시달렸었는데, 비가 내려 이러한 현상이 완화되었으며, 출수가 진행중인 보밀의 생육에도 더 나은 조건을 제공하였다.
- 동아시아: 중국 전역에서는 넓은 지역에서 소나기가 내렸다. 동부 지역에서는 폭우(25~100mm)가 내려, 옥수수와 대두 성장에 필요한 토양 수분을 적정하게 공급해 주었다. 남부 지역으로 갈수록, 가을밀의 수확이 거의 완료된 것으로 나타나며, 주간 총 강수량은 25~100mm 수준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남부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가뭄현상이 지속되었고, 이렇게 건조한 날씨는 조생쌀의 수확에 도움을 주었다. 양쯔강 계곡 주변과 중국 남부 지역에서는 주간 총 강수량이 50mm와 200mm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쌀에 필요한 수분 보유량에 유리한 조건을 유지하였다. 한국과 남부 일본지역은 선호되지 않는 건조한 날씨로 인해 쌀 성장에 필요한 계절적으로 발생하는 수분 결핍 현상이 증대되었다. 이 지역 기온은 평년보다 1~3°C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름작물이 고온으로 인한 스트레스 현상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 호주: 호주 서부지역에서는 넓은 지역에서 소나기(5~25mm, 국지적으로 더 많음)가 내렸

고 계절에 적합한 온화한 날씨가 밀, 보리, 카놀라의 상태가, 초반 수확 전망 상태를 좋음/매우 좋음 인 상태로 유지해주었다. 동부지역으로 갈수록, 산발적인 소나기(5~20mm)가 내렸으며, 빅토리아와 뉴사우스웨일즈 지방의 경우 겨울 곡물과 유지작물의 발아와 수립에 이로운 조건이 지속되게 하였다. 퀸즈랜드 남부는 맑은 날씨가 형성되었고 대체로 적당한 표토층 수분이 가을 밀 성장을 촉진시켰다. 계절에 맞지 않는 온난한 날씨는 호주 남부와 동부지역에서 겨울 작물의 발달을 서두르게 하였다.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1~2°C 높은 수준이었으며, 최고 기온은 대체로 10°C 후반으로 나타났다.

- 아르헨티나: 건조한 날씨가 지배적이었고, 최근 비가 내린 동부 농업생산지역에서 농작업이 향상될 수 있는 조건이었다.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았으며, 일부 지역에서만 산발적이거나 소량의 비(5mm 미만)가 내렸다. 지난 주 내린 폭우로 인해, 건조한 날이 지속되었던 Buenos Aires와 Entre Rios 지역에서는 환영을 받았다. 주간 평균 기온은 서부 농업지역(La Pampa와 서부 Buenos Aires에서 Salta 지역)의 경우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았고, 동부 지역(동부 Buenos Aires에서 Formosa 지역)에서는 평년대비 다소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한 주 동안, 남부 농업지역 최고 기온은 10°C 초·중반으로 나타났으며, 북부지역에서는 20°C 초·중반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 초반, 밤 최저 기온은 영하 5°C로 하락하였지만, 주말에는 따뜻한 날씨가 형성되는 흐름을 나타내었다. 6월 19일 기준, 아르헨티나 농림부 발표에 따르면, 금년 대두 수확률은 93%p로 나타났으며, 옥수수 수확률은 49%p로, 전년 85% 대비 낮은 수준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 브라질: 남부지역으로 갈수록 비가 적게 내렸으며, 최근 몇 주간 계절에 맞지 않게 비가 내린 관계로 기상상황에 일부 기복이 있었다. 남부 Parana와 Santa Catarina 일부 지역의 총 강수량은 25mm를 초과하였으며, Rio Grande do Sul에서 남부 Sao Paulo 지역에서는 좀 더 적은 강수량(5~25mm)을 기록하였다.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은 기온(밤 최저 기온이 5°C 이하)은 Rio Grande do Sul 지역의 가을 밀 성장을 지연시켰다. 일반적으로 따뜻한 날씨가 북부 지역에서 재배중인 옥수수의 성장을 촉진시킨다. 한편, 건조하고 계절적으로 따뜻한 날씨가 중부 브라질과 북동부 내륙(Mato Grosso에서 서부 Bahia)을 지배하였고, 이에 따라 옥수수와 면화의 빠른 성장상태를 예상할 수 있었다. Sao Paulo와 남부 Minas Gerais 지역에서 건조한 날씨가 확대되었으며, 사탕수수와 커피의 수확작업이 계속될 수 있었다. 소량의 비(5~25mm, 국지적으로 더 많음)가 동부 연안지역에 내렸으며, 코코아, 사탕수수, 다른 관개 작물에 필요한 수분을 증가시키는데 일조하였다.